

# 〈玉駕再合奇緣〉作家 再論

—朝鮮後期 女性小說家の 한 事例

鄭炳說 \*

## 서론

<옥원재합기연>은 총 60여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으로, 조선후기 우리소설의 수준을 대표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0~1990년대에 들어와 장편대하소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비로소 주목되었다. 심경호(1990)은 연구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의 필사기와 배접지 등을 통하여, 이 작품의 작가(필사자 주변의 여성), 필사시기(대략 1786~1791), 당대에 향유된 소설의 목록 등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창작시기가 짐작되는(18세기 중반) 여성작가의 소설 한 편을 더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이미 적지 않은 장편소설이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최길용(1992)와 양혜란(1993 및 1994)에 의해 거듭되면서 심도를 더했다. 두 분의 연구는 서지적인 측면보다는 작품 자체에 깊이 천착했으며,

---

\* 서울대 강사

이를 통해 작품의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작가문제에 있어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제출하였다. 최길용(1992)는 이광사 작가설을 주장하였고, 양혜란(1994 : 96)은 작가가 아니라 작가층에 대한 것으로 “중인 신세대 계층”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연구사를 통해 볼 때,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문제는 아직 뚜렷하게 쟁점화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전소설연구에서 오랫동안 큰 관심을 보여온 조선시대 여성소설가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성소설가의 존재는 <방한림전>, <완월회맹연>, <소씨명행록> 등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옥원재합기연>만큼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 작가문제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조선시대 여성과 소설의 관련에 대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본자료검토

<옥원재합기연>은 현재 총 4종이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21권 21책, 완질)과 <옥원중회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21권 21책, 제1권~제5권은 없음)의 두 종은 종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10권 10책, 완질)과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본(낙질)은 필자가 새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규장각본의 필사기에는 작가문제와 관련된 구절이 있어 일찍이 주목된 바 있다. 먼저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옥원을 지은 재조는 문식과 총명이 진실노 규똥의 텃똥하야 한갓 무용한 잡저를 기술하고 세상의 쓰이디 못하미 가석가탄이로다. 명행록, 비시명감, 신옥괴린 등이 다 이 한 손의 난 배로되, 각각 불사록 신신하고 괴이하며 광고하니 이상하다. (제21권)

위에서 필사자는 <옥원재합기연>의 작가가 쓴 다른 작품까지 거론함으로써 작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필사자는 작가를 冢中에 沈沒

한 淸라고 하여, 적어도 기본적인 의미상으로는 여성작가를 가리키는 듯한 진술을 남기고 있다.

〈옥원재합기연〉이 〈옥원전해〉와 〈십봉기연〉이라는 자매편까지 두고 있음을 상기한다면,<sup>1)</sup>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는 이들 외에도 〈명행록〉, 〈비시명감〉, 〈신옥괴린〉 등까지 창작한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옥원재합기연〉만 해도 623,000여자에 이르고, 〈옥원전해〉도 137,000여자에 이르는 거편임을 감안하면, 그의 창작활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벌인 작가는 과연 누구인가?

다행히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의 필사자는 심경호(1990)에 의해 잘 밝혀져 있다. 규장각본의 필사자는 全州李氏 德泉君派 威豐君派 12代인 李永淳의 처 溫陽鄭氏(1725~1799)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子婦, 孫子婦, 曾孫子婦 등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인용문을 누가 썼는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심경호(1990)과 최길용(1992)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심경호(1990 : 177)은 온양정씨의 손자부나 증손자부로 보고 있으나, 최길용(1992 : 438)은 온양정씨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양정씨 혹은 그의 손자부나 증손자부 주변에 있는 인물로 작가로 지목될 만한 사람은 없는가?

## 선행연구개관

앞서 말한대로 작가문제는 심경호(1990 : 177)에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 권21 말 첨기는 〈옥원재합기연〉의 작가가 여성이며, 명행록, 비시명감, 신옥괴린 등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첨기는 온양정씨의 필체가 아니며, 소설본문의 서술어미가 일정하게 ‘-하여’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하야’가 사용되었다. 이 첨기의 필체는 위에 든 권 13 말의 첨기(可興서 淸한 첨기)나 서울대본 〈옥원전해〉 제3권의 중간에 보이는 첨기와 같은 필체로, 본문의 주요

1) 〈십봉기연〉은 〈謔文古詩〉(서울대 규장각 소장) 등에 그 제목이 실려 있어 당대에 실존했던 작품이 명백하지만, 애석하게도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필사자인 온양정씨의 孫子婦나 曾孫子婦가 쓴 것인 듯하다. 또 '옥원을 지은 재조'는 '한갓 무용한 잡저를 기술하고' 운운한 내용으로 보아, 온양정씨는 <옥원재합기연>의 원저자일 수 없을 듯하다.

이처럼 심경호는 기록을 문면 그대로 이해하여 여성작가설을 제기하고 있으며, 작가를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필사자 온양정씨가 작가가 될 수 없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길용(1992)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작가를 추정하였다. 그는 심경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李匡師(1705~1777)를 작가로 추정하였던 것이다.

작가는 ① 온양정씨의 주변인물이며, ② 문식과 총명을 겸비하고도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불우한 인물이고, ③ <옥원> 연작 외에도 소씨명행록·비시명감·신옥기린과 같은 작품들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광사는 바로 소씨명행록의 작자이면서 동시에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로써 본고에서는 이광사를 <옥원> 연작의 작자로 추정하였다. (1992 : 457~458)

최길용은 제21권 필사기를 토대로, 위의 세 가지 가설을 제기하고 이 가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이광사를 꼽았던 것이다. 이광사는 온양정씨의 三從嫗叔父로 필사자가 잘 알 수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黨爭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하여 '규방에 침몰'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길용은 <임하필기>를 인용하여 필사기에 나오는 <명행록>과 같은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蘇氏明行錄>을 이광사가 쓴 바 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최길용은 다음 논문(1995 : 587-591 및 615)에서 이광사 작가설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혜란(1994)은 선행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가가 아닌 작가층을 추정하고 있다. 즉 그는 필사기에 의존하지 않고 작품분석을 통해 작가층을 밝혀내었던 것이다.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두 작품에서 용서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특징은 양 반가문들간의 갈등, 유교적 가부장제의 모순과 불만, 경직된 결연관의 비판,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과정에서 노출되는 심리적 마찰, 부부갈등 등의 사실적 표출이었다. 즉 양반가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의 작자는 의술에 관계가 깊거나 관심이 있고, 양반에 대해 반발이 있는 중인 신세대 계층이라고 여겨진다. (1994 : 96)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에서 강도높게 나타나는 작자의 중인의식은, 가문 소설의 작가층을 양반층 혹은 사대부 벌열층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기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동시에 가문소설이 작가층의 신분적 하향화로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4 : 97)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특징적 요소로 ‘웅서갈등’과 ‘의술모티프’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작가층을 “중인 신세대 계층”이라고 추론해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문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십봉기연〉, 〈명행록〉, 〈비시명감〉, 〈신육기린〉 등 다종의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문제는 고전소설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관심만큼 많은 견해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 이광사설의 재검토

위에서 개관한 세 선행연구 가운데, 심경호(1990)은 작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양혜란(1993 및 1994)은 작가층에 대한 것으로 작가문제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작가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최길용(1992)를 재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문제는 과연 이광사가 규장각본 제21권의 필사기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이광사는 필사기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광사는 온양정씨의 三從媳叔父이다. 그런데 어떻게 從子婦인 온양정씨(또는 그

의 며느리들)가 감히 媿叔父에게 “한갓 무용한 잡저를 기술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광사는 비록 노년에 역모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조선의 이름난 陽明學徒이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어떻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제21권의 필사기에 있는 ‘규중에 침몰하여’의 해석에 대한 최길용의 견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길용은 ‘규중’을 그저 ‘방안’ 정도로 해석하여 여성에게만 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를 “문식과 총명을 겸비한 인물이면서도 세상에 쓰임을 얻지 못하고, 방안에 침몰해 무용한 잡저나 기술하며 세상을 허송하고 있는 불우한 인물” 정도로 보고 그런 인물로 이광사를 꼽았던 것이다. 그러나 ‘규중’을 이렇게 해석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쓰인 용례가 실제로 있는지 하는 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옥원재합기연>뿐만 아니라 <완월회맹연> 등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와 똑같은 용례가 보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 초신이 규중의 침몰하여(<옥원재합기연> 규장각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7, 아세아문화사 영인, 59면).

(내) 내 저저로 더부러 골록지천에 자별홀 분 아니라 남너 형신이 다름지연정 지과 상합하여 피쳐 거름을 비호며 말을 시작할 찌로브터 지조를 스랑하고 덕을 스모하여 너 쇼건을 발호는 바의 저저 마음의 썬 불합히 너이며 업고 저제 의논을 너미 썬 흥복하여 그옥이 흐하는 바는 저갓튼 지덕으로 규중의 침몰하여 성덕 문치를 쓸 곳이 업고 날노 하여금 지과의 중형을 두지 못호를 이달워 호너니 이제 웃지 심각지 아닌 바로 저저를 변난의 상하고 너 능히 비원과 통석호를 길더여 촛물 비나(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2, 서울대출판부, 5면).

(대) 그러타 썬이리잇가. 저제 우리 남미 군종항의 연고 웃음이시니 비록 당미 쇼임을 호고즈 호시나 규중의 침몰하여 감히 쇼대 등을 바라지 못호실 일이 만코(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8, 서울대출판부, 160면).

(개)는 <옥원재합기연>의 여주인공 이현영이 스스로를 가리켜 한 말이며, (내)는 <완월회맹연>의 주인공 정인광이 사촌누나인 정월염을 대상으로 한 말이고, (대)

는 정인광이 사촌누나 정명엄에게 한 말이다. 인용문에서 '규중에 침몰'한 사람은 모두 여성이다. 이렇게 볼 때,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를 남성, 즉 이광사로 본 견해는 설득력이 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필사기에서 언급된 <명행록>을 이광사가 썼다는 <소씨명행록>과 동일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전소설 가운데는 <명행록>으로 축약될 수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예컨대 <삼강명행록>이나 <명행정의록> 등이 <명행록>으로 축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규장각본의 제14권과 제15권의 맨 앞 장에 수록된 당대에 유통되던 소설목록(다음의 章의 인용문 밑줄친 부분 참조)에, <명행록>과 <소씨명행록>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명행록>이 <소씨명행록>일 가능성은 더욱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이광사가 <소씨명행록>을 지었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실린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를 살펴보자.

이원교(\*李匡師)의 자녀 남매가 언서고담을 지어 소씨명행록이라고 하였는데, 家故를 당하여 한쪽 구석으로 밀어 두었다. 원교의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소씨라 자칭하고 책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람을 不測之地에 빠뜨려 놓고 신원설치를 해주지 않는가?” 하였다. 깨어나서 크게 놀란 나머지 未編을 이어서 짓는데 형제와 숙질이 앉아 도왔다. 제사날인데도 밤이 깊은 줄을 모르니 제사는 점점 늦어만 갔다. 文字의 妙가 入神之境함이 이와 같았다.

李圓嶠之子男妹 做諺書古談 爲蘇氏名行錄 遭家故 閣置一邊矣 圓嶠夢有一女子 自稱蘇氏 責曰 何爲陷人於不測之地 不爲伸雪乎 覺而大驚 繼做未編 兄弟叔侄 同坐贊助 祭日不知夜深 齋稍晚 抑文字之妙入神如是耶<sup>2)</sup>

위에서 인용된 “李圓嶠之子男妹做諺書古談 爲蘇氏明行錄”에서 밑줄 친 ‘之’를 최길용은 종래의 諸家들과는 달리 ‘…의’가 아니라 ‘與’(…와)의 뜻을 지닌다고 보면서, <소씨명행록>의 작가를 ‘이광사와 그의 아들 남매’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주변 정황을 감안하여, <소씨명행록> 창작은 이광사가 주도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설사 이 부분의 해석을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른 그의 견해에 따

2) <諺書古談>, 《林下筆記》 卷29,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 1961, 715면.

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李匡師가 아니라 李匡師家의 <소씨명행록> 창작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이광사를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심봉기연>, <명행록>, <비시명감>, <신옥기린> 등의 방대한 소설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보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요컨대, 이광사를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작가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작가가 온양정씨 주변의 여성일 것이라는 점 뿐이다. 즉 심경호(1990)의 당초 결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推論의 擴大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는 필사자 온양정씨 혹은 그의 손자부나 증손자부의 주변 여성이다. 그런데 그 작가는 습작으로 한 작품만 남긴 그런 초보 작가가 아니라,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심봉기연>, <신옥기린>, <명행록> 등 방대한 작품군을 창작한 전문적인 작가였다. <옥원재합기연>으로 대표되는 그가 남긴 작품의 방대한 분량과 높은 수준으로 볼 때, 그의 명성은 꽤나 널리 퍼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소설을 경시하는 시대 분위기를 감안해도, 잘 찾아보면 작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우선 조선후기의 한 위대한 여성 작가에 대하여 다소 성급하지만 과감한 추론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규장각본에 있는 소설목록을 통해 추론의 단서를 찾아보자.

명행록, 비시명감, 완월, 옥원지합, 심봉기연, 신옥기린, 뉴효공, 뉴시삼덕록, 니시세덕록, 현봉향의록, 벽허담관제언록, 옥환괴봉, 옥년봉, 현시낭옹, 명득괴봉, 하각노별록, 임시삼덕록, 소현성녹, 손방연의, 뽕년옥쇼봉, 도잉형, 취미삼선녹, 취현록, 너와던. (제14권 맨 앞 장 소설목록)

기벽연의, 탁녹연의, 서듀연의, 널국지, 초한연의, 동한연의, 당전연의, 삼국지, 남



송연의, 북송연의, 오디토스연의, 남계연의, 국도고스, 쇼현성녹, 옥쇼기봉, 석동옥, 소  
 시명힐녹, 뉴시삼대록, 남하명문녹, 옥인몽, 서유기, 퉁의슈호지, 성탄슈호지, 구운몽,  
 남정기. (제15권 맨 앞 장 소설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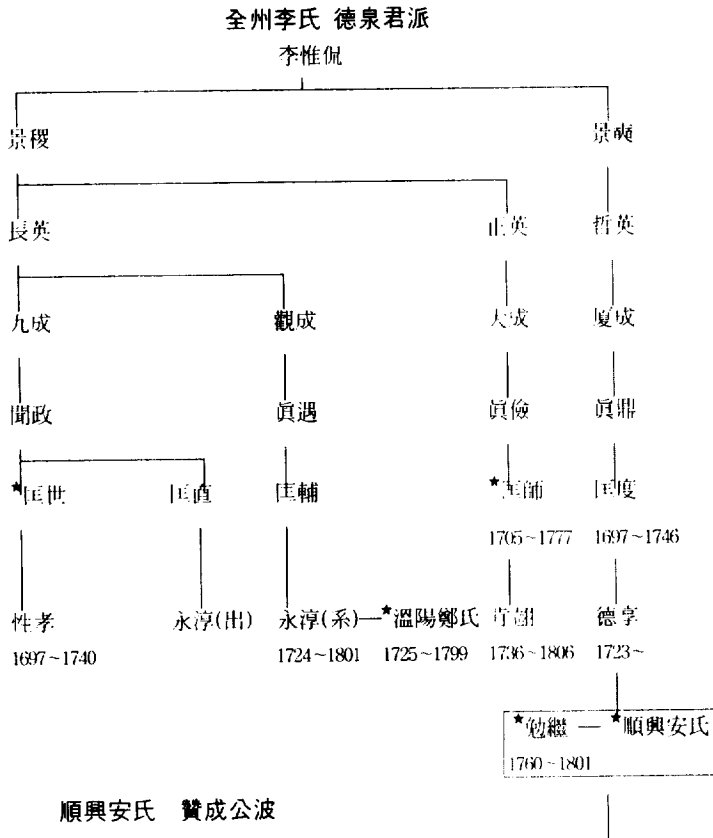
이 소설목록은 규장각본의 한 필사자가 당대에 유통되던 소설 제목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잘 살펴보면, 그 배열에 일정한 원칙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아주 정연하고 일관된 체계를 지닌 목록은 아니지만, 앞의 목록은 [한국장편소설 — 중국소설의 순, 특히 <옥원재합(기연)>과 <십봉괴연>, <뉴효공(선행록)>과 <뉴시삼대록>, <현시낭웅(쌍린기)>과 <명듀기봉> 등의 연작소설은 연작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뒤의 목록도 대개 [중국연의소설 — 한국장편대하소설 — 중국소설 — 한국장편소설]의 배열 원칙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목록은 작성자가 생각 나는 그대로 옮겨쓴 것이 아니라 나름의 배열 원칙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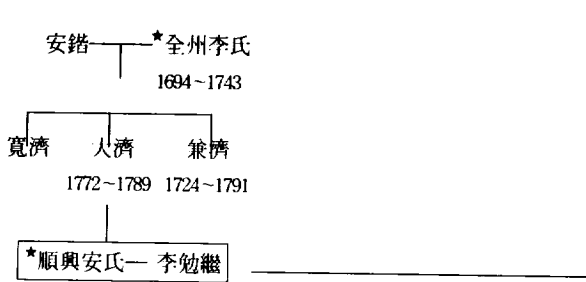
그런데 일정한 배열 원칙에 따라 작성된 목록임을 염두에 두고, 다시 앞의 소설목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맨 앞의 여섯 작품 가운데 “완월”만 제외하면 모두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배열 원칙을 생각할 때, 한 작가의 작품을 한 쪽에 몰아놓고 있는 것을 단순한 우연의 소치로 돌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옥원재합기연>의 필사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당시 유통되던 소설목록을 작성하면서, 먼저 <옥원재합기연> 작자의 작품들을 맨 앞에다 쪽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섯 작품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완월”이다. 나머지 다섯 작품은 필사기나 작품 내적 진술을 통해 <옥원재합기연> 작자의 또다른 작품임을 알 수 있지만, “완월”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완월”이 오히려 작가 추론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완월”의 작가는 <松南雜識>를 통해서 安兼濟의 어머니 全州李氏(1694~1743)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3)</sup> 이렇게 볼 때, “완월”은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를 밝혀주는 고리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는 “완월”의 작가와 동일 작가, 즉 전주이씨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주이씨는 <옥원재합기연>을 비롯하여 <명행

3) 전주이씨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졸고(1997) 제5장 참조.

록>, <비시명감>, <십봉기연>, <신옥기린> 등의 작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규장각본 필사기의 진술이 전주이씨와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살펴볼 차례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주이씨가 온양정씨의 주변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두 집안의 족보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안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족보를 통해 밝혀낸 두 집안의 가계 연관도를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논의에 필요한 주요 인물의 관계를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논의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형제들의 이름은 생략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이씨의 손녀는 온양정씨의 시집인 수州李氏 德泉君派 咸豐君派의 李勉繼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이면계의 아버지 德亨은 온양정씨의 남편 李永淳의 12촌이다. 따라서 전주이씨의 손녀는 온양정씨의 從子 婦로, 전주이씨와 온양정씨는 사돈 관계인 셈이다. 그러므로 전주이씨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규중에 침몰’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온양정씨 주변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한갓 무용한 잡저를 기술”했다고 평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즉 필사기의 진술은 전주이씨와 배치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두 집안의 연관은 李匡世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전주이씨의 庶弟인 李夏濟의 죽음은 이광세와 관련이 있다. 전주이씨의 오빠인 李春濟의 아들의 冠禮를 이춘제는 서제 이하제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는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 10여 명이 식중독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李匡世의 아들 性孝가 죽게 되어 이광세가 이하제를 고발하였고, 이하제는 심문 과정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다. (《英祖實錄》, 英祖 16년 9월 6일)

이렇게 볼 때, 전주이씨는 온양정씨家에서 충분히 인지 가능한 인물이며, 또한 규장각본의 필사기 기록과도 배치되지 않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전주이씨가 <옥원재합기연>의 작가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옥원재합기연>과 “완월”이 가리키는 바의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완월회맹연>을 비교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 왜냐하면 두 작품은 문체, 서사 전개방식, 중심삽화 등에 있어서, 여타의 장편소설들과는 매우 차별적인 반면, 서로 간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높은 한

문 소양을 기반으로 한 문어체, 완만한 서사전개, 핵심적인 삽화로서의 웅서갈등의 특징적인 양상 등이 다른 작품과는 차별적이면서 두 작품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sup>5)</sup> 특히 <옥원재합기연>의 이원희와 소세경의 갈등은 <완월희맹연>의 장헌과 정인광의 웅서갈등과 거의 완벽하게 닮아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원희와 장헌, 이원희의 부인과 장헌의 부인, 소세경과 정인광, 이현영과 장성완은 갈등구조, 인물성격뿐만 아니라, 갈등의 진행까지 거의 똑같다.

### 전주이씨 작가설의 문제

규장각본 소설목록의 배열 방식, 전주이씨와 온양정씨와의 관계,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희맹연>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주이씨를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전주이씨 작가설을 주장하기에는 주저되는 점 또한 없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의 다른 필사기나 작품 내적 진술에 “완월”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희맹연>은 세부적 문체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가 감지된다.

전주이씨가 <완월희맹연>이라는 총 180권의 사상 초유의 방대한 작품까지 창작했다면, 왜 규장각본 제21권의 필사기에서는 유독 이 작품만 거명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세부적 문체의 차이는 전주이씨 작가설을 주장하기에 더욱 주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장편대하소설은 작품 사이의 문체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어 말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하지만 굳이 구체

- 
- 4) 두 작품을 포함하여 수많은 장편소설을 연구한 바 있는 김진세 교수도 두 작품의 독특성과 유사성에 동감을 표한 바 있다.
- 5) 이밖에도 내면 심리 분석의 심화 등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다. 양혜란(1993), 송성욱(1997), 정병실(1997)을 비교해서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양혜란(1993 : 309)은 <옥원재합기연>처럼 웅서갈등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비중으로 나타난 작품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있으며, 송성욱(1997 : 13 및 106-109) 또한 심리분석과 삽화의 측면에서 위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적인 예를 들라면,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송희 등야불하당을 본밧디 아니미 아니나 (<옥원재합기연>, 규장각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영인, 270면)

빈희 등야의 불하당하여시니 (<완월희맹연>, 김진세 독해, 《완월희맹연》 1, 서울대출판부, 140면)

‘宋姬’와 ‘伯姬’는 宋나라 恭公의 부인으로 둘은 동일인이다. 그는 여자는 傅母 없이 밤에 대청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예법에 따라, 궁중에 불이 났는데도 傅母를 기다릴 뿐 불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다가 타 죽은 여인이다.<sup>6)</sup> 이처럼 두 작품은 동일인명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동일 작가설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sup>7)</sup>

## 전주이씨 작가설과 집단창작의 가능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는 최길용(1992 및 1995)의 견해처럼 이광사로 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심경호(1990)의 견해처럼 그저 온양정씨 주변의 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좀더 과감한 추론이 허락된다면, <완월희맹연>의 작가로 알려진 안검제의 어머니 전주이씨의 所作일 가능성 또한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주이씨 작가설 역시 몇 가지 난점을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희맹연>이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동일인의 작품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데서, 우리는 두

6) <列女傳>, 宋恭伯姬.

7) <완월희맹연>에는 백희 고사가 거듭 인용되고 있지만, 송희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작품이 동일인이 아니라 동일집단의 창작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을 듯하다. 필자는 이미 선행 논문(1997)에서 <완월회맹연>이 전주이씨에 의해 주도된 가족집단에 의해 집단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다 위의 논의를 결부하면, <옥원재합기연>도 그 집단의 일부 구성원(또는 구성원들)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작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단독 창작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집단창작을 하였고, 이로써 대체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조차도 아직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현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견해가 아닐까 한다.

<옥원재합기연>의 작가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양혜란(1993 및 1994)의 견해와는 다른 논의로 귀착되게 된다. 작가층은 “중인 신세대”가 아니라 “서울의 士大夫家 女性”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인 신세대 작가층說은 규장각본 제21권의 필사기에도 잘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작가가 중인이라면 필사자는 여성이라는 성적인 한계 외에도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까지 거론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결론—고전소설과 여성작가

18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십봉기연>, <십봉기연>, <비시명감>, <신옥기린> 등의 장편대하소설을 창작한 여성 작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주위의 여성들에게 향유케 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무엇을 기대하고 이처럼 활발하게 소설을 창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작품의 분량과 종수를 보건대 거의 전문 작가의 수준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처럼 많은 작품의 창작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에서 인용한 <소씨명행록>이 집단창작의 가능성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옥원재합기연〉의 작가가 창작했다는 일련의 작품이 집단창작되었다면, 이들 작품을 통해 창작집단의 소설에 대한 열의를 읽을 수 있다. 특히 〈松南雜識〉에는 안검제의 어머니 전주이씨가 “甌月”을 지어 자신의 聲譽를 높이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士大夫家 여성들의 소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조선후기 소설사에서, 여성작가의 문제는 가설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송남잡지〉에서 언급한 “완월”이 〈완월희명연〉을 가리키건 말건, 안검제의 어머니 전주이씨가 알려진 최초의 여성소설가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옥원재합기연〉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려우며, 여성소설가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벌여나갔고, 분량에 있어서나 표현 또는 서술 기법에 있어서나 전대 소설의 수준을 한 층 뛰어넘는 면모를 과시하면서 소설사를 진전시켰던 것이다.

조선후기 여성소설의 향유 상황과 작품 수준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일이다. 조선후기의 여러 문헌에서 여성과 소설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더욱 힘써 발굴하고, 아울러 여성작으로 알려진 소설의 여성적 특징과 면모를 그 연원부터 영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해야 할 때이다.

## 참고논저

- 심경호(1990),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희명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통권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길용(1992),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제2부 8장 〈옥원재합기연 연작〉, 제2부 9장 〈창관호연록 연작〉, 제3부 2장 〈옥원재합기연의 작자고〉.
- \_\_\_\_\_ (1995), 〈가문소설계 장편소설의 형성과 전개〉(燕居齊中東益박사정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편, 《국어국문학연구》).

양혜란(1993),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_\_\_\_\_(1994), <18세기 후반기 대하 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75, 일지사.

송성욱(1997),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논문.

정병설(1997),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